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 도 자 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9월 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이원주 과장(044-203-5240), 김기호 사무관(5243)

진입규제 개선을 통한 청년취업 활성화 촉진

-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완화 (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)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윤상직)는 「**전기공사업법 시행령**」 **개정안이 8. 25.(화) 국무회의를 거쳐 9. 1. 공포·시행**한다고 말했다.

□ 이번 시행령 개정은 **진입규제 개선을 통한 일자리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**하였으며, **청년취업 절벽을 해소하고 전기공사업계의 어려운 인력수급 문제를 함께 해소하는 사례**라고 할 수 있다.

○ 그 동안 **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자는 2년의 경력이 없는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전기공사업체 취업의 제한요인으로 작용**함에 따라 **전기공사업계의 청년 취업자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**했다.

○ 따라서, 진입규제로 작용하는 필요경력을 완화해 **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0시간의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을 이수할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**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.

* (**개정 전**) 전기관련 기능사 **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**한 자
(**개정 후**) 전기관련 기능사 **자격을 취득한 후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교육을 이수**한 자

□ 앞으로, **연간 11,000여 명의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가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즉시 취업**할 수 있게 되었다.

* 최근 3년간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 취득자 현황 : **연간 11,400명**(통계청 자료)

○ 특히, 특성화고 등 **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취업기회가 확대**되고, **전기공사업체의 청년취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**할 것으로 보인다.

○ 또한, 청년인력 진입 활성화를 통해 **전기공사업계의 기능인력 노령화에 따른 전기공사 시공인력 부족 등의 잠재적인 사회적 이슈가 해소**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**전기공사업계 전기공사기술자 연령분포 현황**(전체 129,874명) : **(20대) 2,523명**, (30대) 26,064, (40대) 48,842명, (50대 이상) 52,445명

□ 정부의 이번 제도개선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**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도 하반기중 권역별 공업고등학교 취업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**하기로 했다.

○ 9. 4. 코엑스에서 열리는 **"2015 고졸성공취업 대박람회"를 통한 홍보**를 시작으로 **전국 권역별 취업설명회를 준비중**이며,

○ **전국 시·도지부를 통한 홍보**와 더불어 협회에서 운영중인 **전기공사인력취업정보센터를 활용**해 **청년취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.**

□ 아울러, 이번 진입규제 개선을 계기로 현 **정부의 국정과제인 "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"을 위해 추진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체계 구축과 연계**할 계획이다.

* 국가직무능력표준(NCS: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) :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국가가 산업부문별, 수준별로 체계화한 표준(**일-교육훈련-자격 연결**)

○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을 갖춘 **질적인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기공사업계가 솔선수범토록 유도**하고,

-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추진중인 교육과정을 보다 **현장 활용도가 높고 질 중심의 NCS기반 교육과정으로 확대 추진**할 예정이다.

□ 그 밖에, 시행령 개정을 통해 **전기설비 시공의 안전성을 제고**하고, **전기공사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**했다.

○ 감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전기충격울타리시설, 전기충격살충기 시설, 풀용수중조명시설, 분수의 조명시설 등을 **전기공사 종류에 명시하여 전기설비의 안전한 시공을 꾀하기로** 했다.

○ 또한, 전기공사 수행중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보증수요에 비해 **담보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보증이용한도를 확대**해 **건실한 전기공사업체 성장기반을 조성**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이원주 과장(☎ 044-203-5240), 김기호 사무관(☎ 044-203-52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